



제주 특별 자치도 출범 즈음하여



제주회원
김 학 봉

제주의 오리업 현황과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씨는 삼복더위에 오리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의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빌며...

제주의 오리 사육은 소규모 전업농들로 자가사육과 유통을 겸업하는 농장과 자가사육, 자가소비(음식점, 가든) 및 시장유통으로 이어지는 농가구조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문오리부화장 체제구축이 전무하여 새끼오리는 육지부로부터 90% 가까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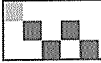
소규모의 농가위주 사육은 지역 특성상 생산비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새끼입추 시, 깔집용 왕겨 등의 반입은 많은 물류비 지출로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열악한 사육환경 속에서도 청정 제주산 오리 창출은 도민의 신뢰와 더불어 자부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 오리업 발전 방향

제주의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광 제주도는 환경분야에 관심이 타 도시 지역보다 각별합니다. 행정적 지원도, 축산인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A1) 전국적 이슈화될 때 제주도는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을 위해 대(大)를 위해 소(小)는 희생을 각오하고 2003년 12월23일부터 내륙으로의 모든 가금류 반입금지라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공항 항만 검역강화 방역철저 구호 아래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관광산업이 1차산업과 더불어 제주 경제의 축이 되고 보니 이해가 되지요?

우선적으로 관광과 먹거리 문화의 만남(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브랜드 음식 개발) 전문 PS부화장 생산기지 구축, 친환경사육, 오리전용 도압장시설, 청정 제주산 오리의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은 제주의 청정 이미지의 보

너스를 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축종업의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의 오리업이 제주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남쪽 섬나라 제주에서 김학봉 올림

